

우명거지

우 명거지란 포경의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다.
우명거지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있었다. 옷을 입지 않던 유인원이나 원시인시대에는 거친 환경과 추운 날씨로부터 귀두를 보호할 목적으로 귀두가 포피(음경의 껍질)로 덮여져 있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옷을 입게 되었고 귀두를 보호하던 껍질은 오히려 여러 가지 해로운 병이 생기게 하므로 현대의학은 남아도는 포피(包皮)를 잘라내게 되었다.

잘라내야 건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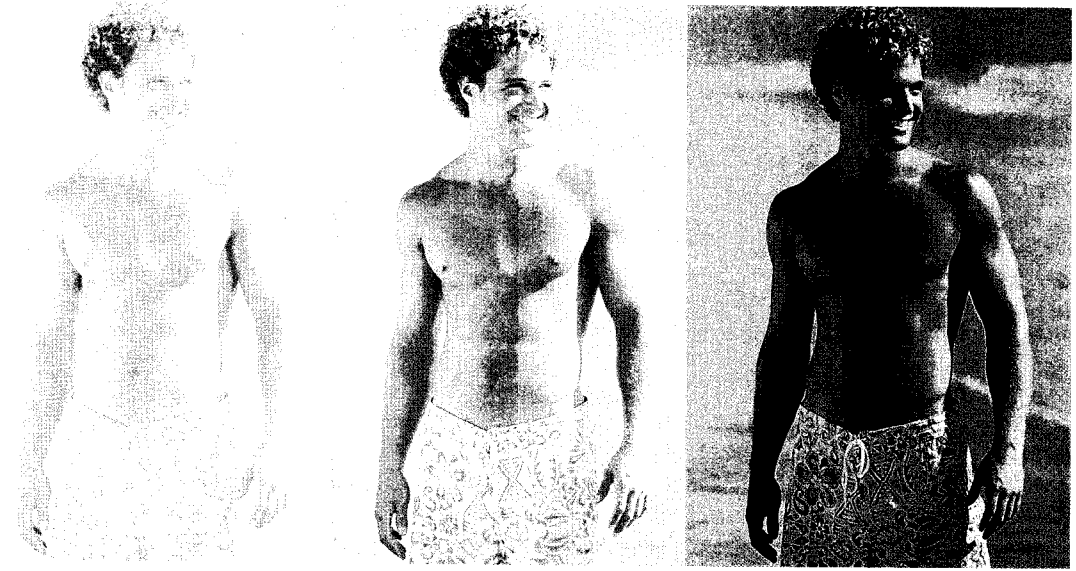
구약성서 창세기에 의하면 야훼와 아브라함의 계약의 징표로 남자들은 태어난지 8일만에 음경의 껍질을 베어 할례(割禮)를 하였다.

포경인 상태에서는 포피가 귀두를 덮고 있어 항상 습기가 차있고 그 속에 치구(恥垢)라는 누런 분비물이 나와 습기가 섞여 고약한 냄새가 난다. 여기에 염증까지 합치면 포피염, 귀두염, 귀두포피염이 생기고 궤양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런 불결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음경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포경수술을 받지 않은 남편들의 부인에게 염증과 자궁경부암의 발생이 많다는 보고도 있다. 어린 아이가 포경일 때 오줌 구멍이 너무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어 오줌을 누려고 해도 잘 나오지 않아 막 올려대면 잘 모르는 부모는 무턱대고 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고 이노제를 먹여 방광에 오줌이 더욱 차서 큰일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음경의 껍질을 포경수술을 하든가 배면절개를 하여 주든지 바늘 구멍보다 작은 포피의 구멍을 넓혀 주어야 오줌을 잘 낼 수 있다.

음경암이 전혀 안 생기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여러 가지에서 차이점이 많은데 특히 생후에 할례를 받고 성장해서 음경암이 전혀 안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금하는 힌두인들에게는 음경암의 발생이 훨씬 많다. 예정에 게오르규의 “25시”라는 소설을 영화로 본 적이 있는데 순진한 루우마니아 농부가 유대인으로 오인되어 나



치에 붙잡혀 들어가 “나는 유태인이 아니다”라고 항의하자 나치 군인은 “그러면 바지를 벗어 보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포경수술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인 것이다.

포경수술은 에티켓

포경수술은 귀두 둘레를 덮고 있는 남아도는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로 의학적으로 환상절제술(環狀 切除術)이라고 한다. 일부 학자들은 포경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건강 면으로 볼 때 수술을 해야 한다는 쪽이 많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

수술의 시기는 갓 태어나서 하거나 말귀를 알아듣는 초등학교 시절이 좋겠고 그 다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포경수술은 정상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목욕탕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울퉁불퉁 흉칙스런 모양을 하고 다니는데 남자의 성기는 장난감이 아니고 중요한 생식기이다. 함부로 다루다가는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겨 피부이식을 해야할 경우도 생기고 해바라기와 같이 울룩불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성생활에도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상대방이 혐오감을 갖게 되어 기피하는 경우도 생긴다.

겨울 방학 때가 되면 수술을 받겠다고 비뇨기과를 많이 찾는데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나중에 아이를 바람둥이로 만들려는지 무엇도 모르고 말아 올려 달라느니 해바라기로 만들어 달라느니 주문이 많은데 정상적으로 해주어야 한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은 포경수술을 안 했다는 제목으로 크게 광고한 어떤 주간지를 보았다. 내용인 즉 경제가 어렵고 의료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 가하게 포경수술은 생각도 못하고 또 포경수술이란 단어 자체도 모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점잖은 신사가 실내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벗듯이 에티켓 있는 남자는 결혼하기 전에는 부인을 위하여서도 포경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 PPFK



차영일 비뇨기과 원장